통권 137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3. 3. 17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이라크 침공계획 미국을 반대한다

[사진/ 민중의소리]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이라크 다음으로 우리 땅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염려가 확산되면서 15일 오후 5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3 · 15 반전 평화 촛불 대행진' 도 반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채워졌다. 이 집회에서는 '반전' 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던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들을 폭력연행한 것과 관련한 규탄의 목소리도 높았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 2 / 이 달의 시 김수룡 선생님 • 6 / 출소장기수 최일헌 선생님을 찾아서 이상일 대전양심수후원회 회원 • 7 / 양심수 박경순님의 부인 김이경님을 찾아서 이승미 편집위원 • 9 / 양심수박경순님께서 보내온 편지 • 12 / 양심수 박경순님께 보내는 편지 고선주 신입회원 • 13 / 서울구치소 농성장 방문기 이창희 후원회간사 • 14 /광고 • 15 /산행기 유호근 신입회원 • 16 / 회원교육강좌 보고 홍은경 단국대법사회학회 회원 • 17 / 특집 "한 · 칠레 무역협정반대" • 18 / 나의 삶 나의 일터 유영업 신입회원 • 24 / 시사만화 • 27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8 / 재정보고 • 35 / 회비납부 • 3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참여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인권관련 개혁 과제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 했다.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 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펼쳐갈 것이라 했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풍토 조성도 빼놓지 않았다. 교육혁신 부정부패척결 지역탕평을 예시했다. 또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모두가 바람직한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인권부분이 빠져 있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10대 국정과제에서도 인권부분이 없었는데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반인권적인 법과제도가 존재하고 법집행(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돼 오고 있지만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권개선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상당부분의 주권상실과 민족자주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재정립 개선책도 없었다.

국가가 추구하는 국정목표와 정책과제들은 당연히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발전시키는데 있을 터이었다. 국가나 법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국가와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국가발전,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운 거대한 물량주의에 밀려 실제 사회발전을 이끌어온 주체 바로 인간은 상대적으로 왜소화되고 권력과 자본의 지배 메카니즘의 부속물로 전락되고 있었다. 불평등의 제도화로 상대적 빈곤은 확대되고 있었다. 소수기득권의 가치관이 강요되는 가운데에 다수의 이익은 침해되고 불공평이 세습 되어 권력으로 재생산되는 기득권의 대물림이 관행화 되고 있었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법이 오히려 기본권 침해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설정법이란 이름으로 준법강요를 받아오고 있었다. 사회발전 또는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 풍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터이었다. 사람답게, 주인답게 사는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고, 구성원 사이의 상대적 빈곤이 없는 사회, 천부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이루는 일 일것이다. 바로 함부로 살육 당하지 않고 수탈 당하지 않으며 학대받거나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이다. 이제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정지표나 정책과제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나 다루지 않았던 주권(민족자주권)문제, 인권과제들 몇 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사람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권리가 인권이라면 전쟁은 가장 잔인한 반인권행위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쟁위협이 조성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른바 '북 핵개발 의혹'을 평화위협 요소라 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는 '북핵개발'을 전제로 하는 평화위협론은 그 해법을 찾는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악의 축' 발언 핵 선제공격, 중유공급 중단등 잇단 미국의 이북에 대한 말살정책을 숨겨둔채 핵 의혹만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존엄과 이익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회석시킬 수 있다. 이 땅에서 평화위협원천은 주권을 침해하고 민족자주권을 짓밟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주의 군사주의에 있지 주권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수단에

있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위협에 대항하는 민족공조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밝혔던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외세와 분단이란 조건에서 자주와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민족에게는 개개인의 인권 못지 않게 민족전체의 생존과 존엄, 그리고 자주권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을 말할 때 민족자주권을 빼놓고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세계제패의 군사주의 지배야욕으로부터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와 정의를 세우며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은 이 시대 우리민족의 선택할 최고의 가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평화는 분단을 전제로 하는 평화관리가 아니라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바탕으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전쟁책동을 막아내는데 있다. 또한 이 땅에서의 평화는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는 의미이지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성의 훼손을 감내하는 평화가 아니다. 이제야 말로 새정권이 출범하면서 제시한 오랫동안 우리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지배해온 낡은 틀을 깨야한다.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북은 여전히 반국가 단체이고 주적개념에 속하며 붕괴시켜 흡수통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낡은 냉전사고와 고정관념이 남아있다. 성조기를 흔들고 미국국가를 부르며 '영원한 혈맹'을 외치고 있다. 자주의 시대에 이같은 무국적 탈민족 가치혼란의 냉전사고는 시급히 제거되어야 한다. 바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며 당면과제로서 한·미 소파의 전면개정에 머물게 아니라 한·미 방위조약 자체의 재검토등 한·미관계의 재정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부당하게 소외되고 탄압 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참여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했다. 그런데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겪어온 우리사회는 불평등이 제도화되고 부당한 탄압이 관행화 되고 있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인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인권침해는 부당한 인신구속 이었다. 그 중에서도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활동해 온 사람들의 구속이다. 바로 양심수들이었다. 양심수를 감옥에 가두고서는 참여정부라 할 수 없고 개혁을 말할 수 없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양심수가족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대통령취임 양심수사면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취임사면은 없었다. 3·1절에 1000여 명의 가석방이 있었지만 양심수는 한사람도 없었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으로 7년형을 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경순씨가 참여정부를 말하고 개혁과 화합을 주장한 새정권이 양심수사면을 외면하고 있는데 항의하며 옥중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구속된 때부터 중증 간경화를 앓고 있어 영양공급과 절대적 안정이 요구되는 위급한 환자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석방문제 때문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다 구속된 양심수를 민주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사면하지 않는데 대한 항의였다. 그러하여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하며 가족과 사회단체 성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죽음을 각오한 단식을 하고있었다. 박경순씨의 단식은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집권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양심수 사면 방침을 밝히게 되었고 가족과 사회단체의 권유를 받아드려 박경순씨는 9일 동안의 단식을 끝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다.

양심수 사면에서 선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3월 5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60명의 양심수는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으로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정치수배를 당하고 있는 250여 명 학생들과 노동자,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수배해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양심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던 모든 사람의 사면·복권도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가운데 먼저 손댈 일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모든 반인권 악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낡은 것을 두고 개혁이 이루어질 수

는 없다. 따라서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두고서는 자주통일도 민주주의 발전도 인권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존립명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법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가로막고 민중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폭압도구로 존치돼 왔었다. 일제의 식민지배 잔재이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이 반민족 반인권악법은 지난 반세기동안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를 잡아죽이고 감옥에서 보냈으며 사상탄압, 분단고착의 악역을 다했다.

6.15 공동선언시대 화해협력정책을 이어 평화번영 청책을 추구하는 참여정부는 반드시 개혁에 발목을 잡을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할 것이다. 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대통령의 의지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의 공약과제이기도 했던 국가보안법폐지에 모든 정치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입법기관에서 폐지안이 처리되기 전에라도 국가보안법관련 양심수를 석방하고 정치수배해제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돼있는 범민련 · 한총련의 이적규정을 철회 조치하여 이 법의 실정법으로서의 실효성을 잃게 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함께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법을 없애고 준법서약제도를 없애야한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보장되는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정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도 없애야 할 것이다.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 하고 구속과 정치수배로 이어지고 있는 부당한 탄압도 중단되어야 한다. 범민련은 남 · 북 어느 정권에 대해서도 적대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동조, 추종하지 않는다. 오직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남북이 합의한 7 · 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근거하여 결성되었다. 범민련은 남과북, 해외의 광범한 각계 각층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통일문제에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합리적인 통일방도인 6 · 15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요구, 선언이 탄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터이었다. 범민련의 성격을 규정하는 강령에서도 7 · 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 · 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 통일국가를 수립한다고 했으며 또한 애국,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운동을 벌여나간다고 하였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했다. 어느 하나도 이북을 이롭게 하고 이남을 해롭게 했거나 이북을 찬양 · 고무하고 이남을 헐뜯는 데가 없다. 실제로 오늘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강령은 다른 통일운동단체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범민련보다 더욱 적극적인 강령을 가진 정당이 지난 대선에서 아무제재 없이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다. 지난 3 · 1민족대회에 참가하려 했던 범민련 대표와 성원 심지어 고문을 맡은 다른 사회단체까지 당국은 불허하고 있었다. 6 · 15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가장 헌신적 통일운동단체가 여전히 이적단체로 묶여 활동제약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참여정부가 추구하고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있다. 범민련의 이적규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1998년 7월 28일 대법원은 제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었다. 그 이유로는 ①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② 이북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이며 ③한총련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 단체인 이북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5기 한총련을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6 · 15남북공동선언시대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립명분을 잃었으며 남북은 서로의 존재(체제, 제도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기본합의서에서 서명했었다. 더구나 한총련은 이북의 활동을 찬양 · 고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결성된게 아니라 당시 5기한총련 강령에서 말했듯이 조국

의 자주와 사회민주화와 통일, 학생운동의 국제연대, 건강한 민족문화 구현, 학원의 공동체성 회복, 학우들의 부분별, 계열별 활동지원, 건강한 사회인 양성 등을 지향하는 학생들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 결성되었다. 한총련 대의원은 매년 새로 뽑힌 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등의 학생대표로 구성되며 활동방식은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통해서 확정되고 있다. 5기 한총련이 부당하게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지만 새로구성되는 6, 7, 8, 9, 10기가 자동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는 관행은 무모하고 부당한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한총련을 처음으로 이적단체로 판시한 대법원조차 '한총련은 그 의장 및 간부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교체되고 매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간부진의 구성과 성향에 다라 매년 한총련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는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 밝혔었다. 9기 한총련은 공안당국이 문제시 해온 '연방제통일' 을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고쳤고 10기 한총련도 다시 강령개정을 통해 여성, 인권, 환경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더구나 새로 구성될 11기 건설준비위는 '시대변화에 발 맞춰 21세기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 할 것이라고 했고 , '백만학우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3백만 대학생 모두를 품어 안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고 했다. 또한 한총련은 대다수 학우들의 이익과 요구 앞에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는 열린 자세로 학생운동이 통합질서구축에 나설 것이라 했다. 학생운동 대표조직다운 위상에 걸맞게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대중성회복을 위한 일대혁신을 한다고 했다. 오는 3.14~16일까지 진행될 11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서는 학생운동 10년의 역사를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전망하면서 이적규정으로 고통받았던 6년의 역사를 새로운 발전의 밑거름으로 하여 한총련을 정상화하고 명실상부한 한국학생운동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이어져서는 안된다. 참여정부 지도부에서 이미 천명했듯이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와 한총련관련 양심수석방 정치수배 해제조치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할 개혁과제로 오랫동안 국민적 원성의 대상이었던 공안탄압기구의 해체 또는 개편작업이다. 지난 9일 검찰개혁과 인사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평검사들 사이의 공개토론에서도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사들의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오만한 모습이 들어 났었다. 이러한 권력기관이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지 짐작이 가게 했다. 그런데 권력기관 중의 권력기관인 국정원 공안 검찰, 보안수사대등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오래 전부터 사회여론은 이들 공안탄압기구의 해체를 요구해 왔었다. 국정원은 정보, 기밀, 수사등 특권을 쥐고 모든 정보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국가안보라는 본래의 임무에 맞지 않게 '정권안보' 역할을 하면서 부당한 정치개입, 인권침해, 직권남용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특히 '수지김' 사건이라던가 '최종길교수 간첩조작 살인사건'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국정원개편을 약속했었다. 현재의 국정원을 해체하고 정보화시대 필요하다면 '해외정보기구' 로만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5~60년대 냉전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안검찰과 보안수사대도 없애야 한다. 특히 비밀 수가기관으로 보안수사대의 인권침해는 오랜 원성의 대상이었다. 보안수사대나 공안검찰의 머릿속에는 자주는 반미자주로 민주는 인민민주주의로 통일은 고려연방제통일로 미리 규정하여 통일 애국인사와 한총련 학생들을 적의를 가지고 대하고 있었다. 6·15공동선언시대 누구나 자유롭게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말할 수 있게 하고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들 공안탄압기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사면·복권을 단행하라.!!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을 폐지하고 노동관계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범민련·한총련의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북과 남의 3·1절 첫 공동행사

김수룡 출소장기수 선생님

평화통일 함성
공동으로 열렸다

그러나 엇갈린 집회가 되었다
시청앞에는 미군철수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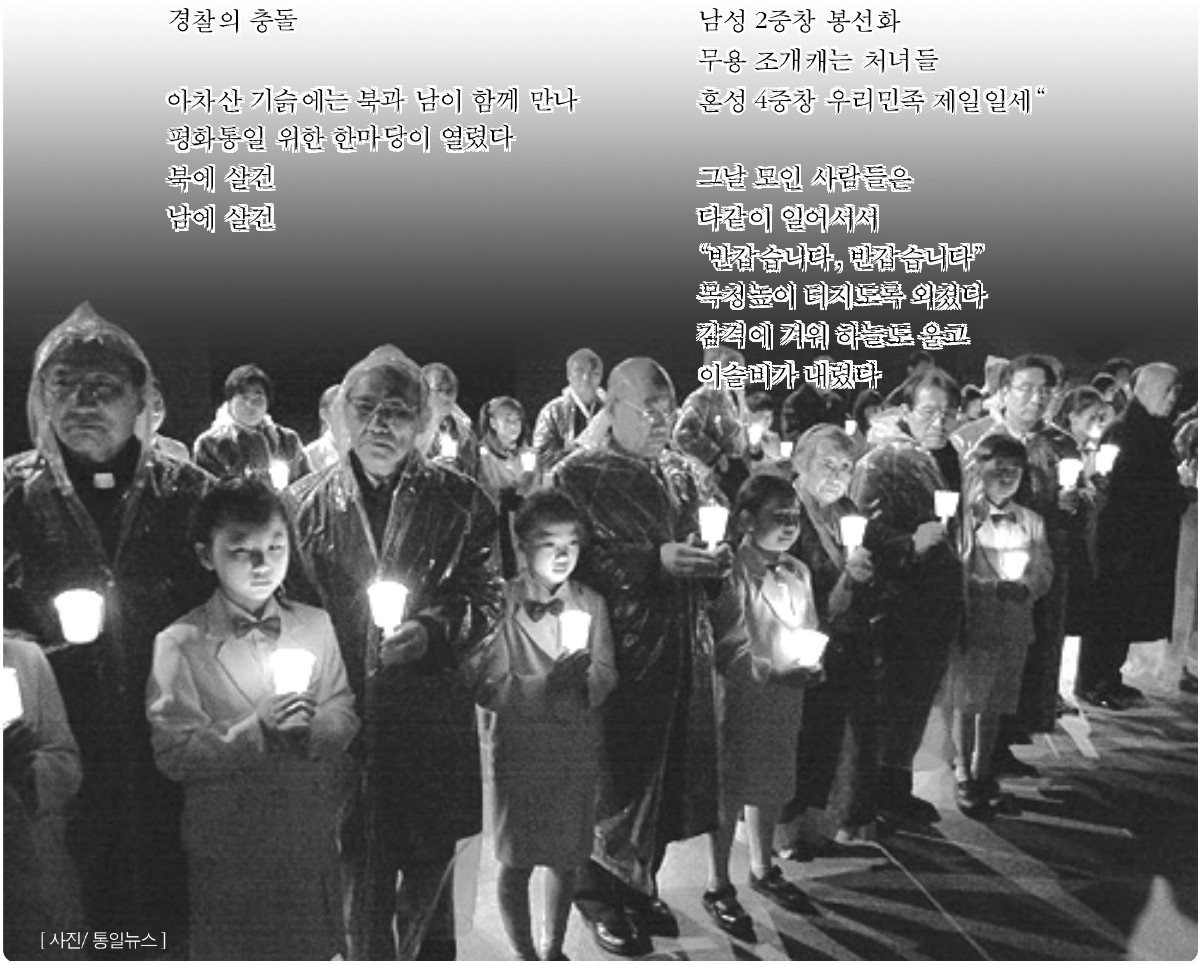
탑골공원에는 힘합쳐 이라크 침공반대
민족자주 촛불행진
광화문으로 가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아차산 기슭에는 북과 남이 함께 만나
평화통일 위한 한마당이 열렸다
북에 살건
남에 살건

3·1 애국열사들의 후손답게
민족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6·15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해 나갈 것을
격조높이 호소한
메아리가 강나루에 퍼져나갔다

"녀성 3중창 아리랑
남성 2중창 봉선화
무용 조개캐는 처녀들
혼성 4중창 우리민족 제일일세"

그날 모인 사람들은
다같이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청높이 터지도록 외쳤다
감격에 겨워 하늘도 울고
이슬비가 내렸다



[사진/ 통일뉴스]

자란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

이상일 대전 양심수후원회 회원

갑자기 인터뷰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후원회 편집일을 하면서 조금씩 장기수분들을 만나게 되니 이젠 나도 공안당국의 요시찰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대전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이 글이 실린다고 하니 나로서는 더욱 조심스럽고,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그래도 쓸 말은 쓰리라 다짐한다.

마감시간에 쫓기는 만화가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다. 3월 소식지 발송작업도 끝났겠다. 한동안은 맘편하게 지낼것이라 생각했는데 느닷없는 원고독촉.. 평소에 편하게 A4 한 장이면 족했던 분량이 두 장이라니 이게 웬 청천벽력인가. 어떻게 머리를 짜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많으리라 짐작(?)되는 편집자님께서 능숙하게 조절하시기를..그리고 문체가 좀 편해 보여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최일헌 선생님과의 만남

필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마감당일인 3월 11일 화요일에 취재를 나갔다. 후원회 사무실에서 간사님의 설명으로 최일헌 선생님의 근무지(선생님은 현재 대전 홍명상가앞 공원에서 환경미화일을 하심)를 찾았으나 도착 5분전에 퇴근하시는 불상사가 생겼다. 그래서 당일안에 해결하려면 부득이하게 댁에까지 찾아가야 했으나 명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길거리에서 한 시간을 헤매게 되었다. 충남도청 일대를 이잡듯 뒤졌으나 찾아지지 않자 번지수를 물어보고 간신히 발견했다. 알고 보니 간사님이 가르쳐준 빌라이름이 잘못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선생님을 만나 뵈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선생님 역시 나를 더할 수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방안은 반듯하게 정리되어있었고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신 곳 치고는 꽤 밝은 분위기다. 선생님은 현재 할머니 한분과 함께 사신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선생님의 간단한 약력

1928년 만주 출생, 소학교 졸업
1946년 5월 중국 조선인민군대 입대
1950년 한국전쟁 참가
1954년 군 제대 남포 제련소에서 근무
1958년 통일사업 참여 남하 중 체포
1985년 출소(27년 복역). 출소 이후 환경미화, 극장 청소부 일을 하심
2000년 10월 교통사고 전치 26주로 입원

〈출처: 2001년 1월 대전 양심수 후원회 소식지〉

선생님께서는 46년 중국의 모택동 군대 휘하에 계시다가 6.25가 발발하기 3개월 전에 조선인민군에 편입되셨다. 전쟁발발 직후에 낙동강까지 남하했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전쟁기간 내내 근처를 방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58년 한 요원과 함께 남파되었으나 이내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모범적 형 생활로 27년을 복역해 출소대상이 되었으나 남한내에 연고가 없어 계속 미뤄지다가 대전 심광사의 박중화 스님의 신원보증으로 형을 마치셨다.

선생님과의 일문일답

2000년에 교통사고를 겪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현재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사고당시에도 나이가 73세였다. 나이를 먹으니 쉽게 나아지질 않는다. 더군다나 그때 다리가 몇조각으로 부러지고 장기에 손상이 올정도였는데 쉬울수가 있나. 그래도 지금 걸어다닐 만은 하다.

박중화 스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교도소에서 불교강연을 듣는 중에 만났지. 돌아가신지 몇 년 되었다. 출소하고 근 이년동가까이 절에서 살았다. 아침마다 염불도 드리고 거의 절 사람이 다 됐다. 하지만 난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라 그다지 종교에 깊이 빠지지 않았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다.

사회에 나오셨어도 당시엔 활동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텐데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 3달에 한번씩은 전화가 오고 쉽게 거주지를 바꿀수도 없다. 다니고 싶은 데가 있어도 마음대로 못다닌다. 하긴 몸이 안좋아서 쉽게 돌아다닐 수도없지만…

그래도 요샌 예전보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산다.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시죠?

그럼. 그렇지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좋다 싫다는 이젠 잊은 지 오래다. 그냥 가고싶다. 내 처자식이 모두 그곳에 있는데 죽기전에 한번 봐야하지 않겠나. 나는 전향한 순간부터 후회했다. 출소는 했어도 내면적으로 감옥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을 만날때도 나 자신에 대해 털어놓지 않도록 조심했고 될 수 있는 대로 술도 마시지 않았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 많겠지만 좋았던 기억도 있으실텐데요.

그나마 맘이 편했던 것은 대학생들과 시민단체회원들이 찾아와 도와주기도 하고 이야기 상대도 해주었다. 고맙게 생각한다. 힘들었던 것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도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보고 도움도 주고 싶지만 현재 삶이 너무 여유가 없다.

써놓고 보니 그다지 길지는 않지만 한시간 반정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함께 계시는 할머니와는 출소후에 만나셨다. 그래도 그분 둘 서로 많은 위안을 주고받으며 사시는 것 같다. 할머니도 현재 다리가 편치않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그분 역시 선생님의 전력 때문에 많은 가슴앓이를 하셨다.

27년 동안 옥살이와 더불어 이후의 삶 역시 정신적 감옥, 같은 대한민국안에서 아무 생각없이 살고 있는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또 한사람의 인간을 만났다. 76세로 이젠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몸도 좋지 않은 분들이 앞으로도 불안정한 여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온다.

2차송환이 추진되면서 그나마 나고 자란 땅을 한번 밟아보고싶은 선생님의 소망이 올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우리가 축복 받은 삶임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기를…

이승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당당하고 떳떳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기본이 어떤 사상과 심리에서 비롯되는지가 그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다르게 하는지를 요며칠 실감하게 된다. 반성이나 책임의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당당하게 '결연한 저항'의 몸짓을 행하고 있는 수구세력들의 후안무치함과, 그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키고 완수해내려는 박경순, 김이경님과 같은 분들의 그 아름다운 '당당함'을 보면서 말이다.

▲ 목요집회에서의 부인 김이경 님 [사진/ 오마이뉴스]

오래 전부터 소모성질환 간경화를 앓아온 탓에 다른 양심수들이 옥중단식을 할 때에도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누가 된다며 혼자 쓸쓸하게 밥을 드셨다던 박경순 님, 그런 남편이 이번에 목숨을 걸고 행한 단식에 대해 차마 중단 요청을 할 수가 없었다던 김이경 님… 당시의 심정을 모두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삶의 더 높은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두 분은,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귀감이지 않은가란 생각을 해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크게 마련이지 싶다. 현 정부는 취임식 날을 그냥 말없이 지나갔다.

국가권력층들은 양심수석방, 수배해제, 사면복권 등을 마치 무슨 '시혜' 정도로 착각하는 것 같다. 그러하기에 지나간 독재정권들은 그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를 행하였는데, 현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서 비롯되는 양해의 여지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이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들을 한다. 박경순님의 이번 단식결의의 출발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고 감히 생각해본다. 박경순님은 이번 양심수석방 대상자들의 중심점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 그만큼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동안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 아니었을까.

김이경님과의 만남은 박경순님의 단식 7일째 되던 3월5일 늦은 밤에서야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의 인터뷰 요청이라 그만큼 미안함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에 몸담고 있는 김이경님은 그곳 사무처장으로 있다가 얼마전 자주교류위원장을 새로이 맡아 일하고 있다. 1961년에 3녀1남의 장녀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 박정우 군과 둘이 살고 계신다.

79년도에 숙대 중어중문과에 입학한 그녀는 80년대의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내내 주변부에만 머물러있다가 3학년이 되어 휴학을 하면서부터 고민 끝에 야학활동을 시작했고 그 곳에서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나

게 된다.

"제 판단에 평소 비인간적이다 싶었던 사람들이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울고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오히려 내 자신이 그동안 비인간적으로 살았던게 아닌가 싶었지요. 그러면서 점차 운동적 삶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다시 복학한 후 82년 10월경에 학내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되어 1년6월형을 살고 나온 후 서울, 인천 등에서 노동운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노동운동 조직사건(노해동)이 터지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상태에 놓이게되자 80년대 후반 남편 박경순님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곳 부산, 울산 지역에서 그녀는 여성운동을 비롯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결혼은 수배 직전인 86년도에 하셨다고 한다.

박경순님은 어떤 분이냐는 질문을 슬그머니 해보았다.

"남편과는 야학활동하던 시절에 처음 알게된 사이지요. 당시 다른 선배들은 대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는 참 편했어요. 한번은 제게 77년에 자신이 쫓기던 당시의 무서웠던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어찌나 진솔하고 순박해 보이던지요. 제가 좀 자유분방한 편이라 평생 운동하면서 잘 살려면 심지가 굳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고집도 있고…"

올해로 마흔여덟이 되신 박경순님은 1977년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입학하여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을 지속해오신 분이다. 86년도에 김이경님과 마찬가지로 시작된 장기 수배생활은 92년까지 이어졌고, 그 후 울산에서 늘푸른서점을 개업하여 생활을 하셨다.

박경순님은 85년 노동운동 관련으로 안기부에서 무리한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이미 심근경색증과 간염을 앓기 시작하였고 97년에 간경화 중기 진단을 받으면서부터는 활동을 정지하면서까지 투병생활에 전념하셨다 한다. 그러던 중 98년 7월에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좋은 사람 주변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마련인가 보다. 이 부부를 만나고자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잦았다고 한다. 그런데 수개월 전부터 기관원들이 이를 도·감청하고 심지어는 건너편집에 세들어 살면서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사진촬영까지 했다하니 기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박경순님은 결국 '영남위원회' 조직 구성 혐의로 김이경님, 당시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을 포함하여 부산·울산지역의 노동·사회단체 지도자들 15명과 함께 구속되셨다.

"당시는 IMF로 인한 여러 가지 투쟁들의 열기와 파고가 높아져가고 있는 분위기였고 그 속에서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타지역과 달리 광역단체장의 민중후보가 아슬아슬하게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대단했지요. 운동권의 큰 흐름이 울산에 형성되어 가는 현상 자체는 당시 정권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또 만들어낸 '작품'이 영남위원회 사건이지 싶다. 조작으로 인한 수사에서의 허점은 바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1심 재판 이후 사건의 심각성은 사회에 일파만파 번져 100명에 이르는 변호인단 구성, 30여명의 국회의원 서명 조직, 각계 지도자의 잇따른 성명, 사건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각 언론의 기사 등이 잇따랐다. 결국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과 관련한 부분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남편은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내부의 타협 지점이 그 정도 선이었던 거겠지요. 올해로 5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개혁은 정치, 사회, 인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개혁과 인권실현의 상징적인 조치로 양심수 사면과 수배조치 해제를 단행하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단식을 시작합니다. 간경화 환자가 단식을 하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경순님이 단식을 시작하며 보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중 일부이다. 곧이어 다른 교도소의 양심수들까지도 단식에 동참하고 나섰다.

김이경님은 그 며칠 후 '제 남편 박경순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호소문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는 아들 박정우 군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글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아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곧 있으면 아빠가 감옥에서 나올 거예요. 엄마도 너무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남편의 단식은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밖에서 더 열심히 싸웠어야 하는데 안에서 먼저 결단을 내려주었으니 미안할 따름이고 반성도 많이 되지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웠다면 아름다운 죽음 또한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죽음이 과연 유의미한가의 여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민족민주운동에 발전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것도 안 했으면 최소한의 것도 얻어낼 수 없었을지 모르지요. 주동적으로 임한 것이기에 마음은 편합니다. 이제, 해야할 남은 일들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대세는 정리되고 있고 승리했다고 본다는 김이경님의 맑은 표정 앞에서 나는 그녀의 굳은 신심이 그대로 전이되어오는 듯한 느낌에 젖어들었다. 운동적 낙관이란 바로 저런 모습이지 싶었다.

가족들과 사회단체, 시민들의 눈물겨운 투쟁 끝에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졌고 4월내 양심수사면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러 3월7일 마침내 박경순님은 9일간의 단식을 중단하셨다.

민가협 어머님들 투쟁하는 모습 뵈면서 너무 놀랍고 감동했다는 그녀는 그동안 함께 하는 과정에서 만난 그분들의 모습, 표현, 자신감 등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 마음들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김이경님은 그저 개인적인 바램을 이야기하진 않았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뭔가를 하면 그걸 주위에서 알아주길 바라곤 하잖아요? 받은 거 따지고 또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풍토, 그게 없어져야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러한 삶이 참으로 축복 받은 삶이라는 것을 각자가 진심으로 느끼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잣대로 바라보거나 규정지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높고 큰 가치를 지닌 거라는 것, 바로 그런 삶이지요…"

개별의 사람이 아니라 대의 속에서의 사람과 역사를 바라보는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통일연대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통일쌀나누기 국민운동본부'의 발족이란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남북교류의 창구를 마련하고, 단순한 지원 차원이 아니라 우리민족농업 살리기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하면서 덧붙이는 한 말씀, "양심수후원회에서도 통일운동 많이 해주세요" 한다.

현재 양심수가족농성단 분들이 3월1일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계신다. 이후 22일부터는 '양심수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 걷기 전국 교도소 순례(가제)'를 4월 중순경까지 진행할 예정이라 하신다. 뜻있는 많은 분들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함께 동참하여야 하겠고, 계속 이어지는 노력으로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본다.

'항상 사랑과 실천을 화두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자신이 아는 만큼 반드시 실천해 나가는 삶 속에서 참된 삶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했던 박경순님의 편지글이 문득 떠올라 가슴에 새겨본다. 두 분,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들의 작은 힘들이 모이게 되면 위대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존경하는 고선주님에게

오늘 운동장에 나가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단식의 고통속에서 모대기는 동안 어느새 봄이 성큼 와 버린것 같습니다.

아직은 약간 쌀쌀하다 싶었지만

살랑살랑 얼굴을 간지르는게 참 상큼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생명을 깨우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니 조금 오해가 있는 듯한데, 쓰러졌던 것은 아니었고 간기능검사에서 간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었습니다.

지금은 단식을 마치고 복식중에 있습니다.

그전까지 죽물을 먹다가 어제부터 죽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다음주 부터는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선주님처럼 정의와 양심을 사랑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으로 제 단식투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고선주님의 지지 성원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느꼈지만 우리들의 작은 힘들이 모이게 되면 위대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한사람 한사람이 다 귀중하고 소중한 조재들입니다.

고선주님도 항상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가를 잊지 마시고 또 고선주님이 갖고 계신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잊지 마시고 항상 모든 삶과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민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하나 입니다.

항상 즐거운 생활이 되길 빕니다

2003. 3. 13

부산교도소 박경순

박경순님은 1998년 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144번으로 수감 중입니다. 최근 새 정부 취임에 양심수석방을 요구하며 간경화를 앓고 있음에도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투쟁을 진행하였으나, 정부당국의 4월 양심수사면 약속과 사회단체 어르신들의 만류로 9일째로 마쳤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있어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박경순 선생님께

건강하시다는 말씀을 들으니 저 또한 힘이 납니다.

어제는 마산에서 일어난 3.15 의거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곳은 마산에서 가깝기 때문에 마산 소식을 많이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기념 행사 이야기도 전해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피 흘린 싸움이 있었기에 독재라는 서슬 푸른 시대는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역사의 나아감을 위한 과제를 등에 지고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 짐을 지고 있는지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라는 것에 치열하게 고민 해보지 않은 채 자신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 속에 있으면 그런 동무들의 모습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자신들이 왜 0교시를 하고 야자를 해야하나 하는 것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만 비판하다 보니 끝내는 스스로 자신을 메어 놓는 입시라는 것에 순응해 버립니다. 이 나라 청소년 각각이 자신을 억압하는 이 제도의 시초는 학벌과 입시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바꾸려 할 것이고 결국 학교, 교육 그리고 자신의 삶도 바뀔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우들을 사랑합니다.

일요일 아침,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민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하나입니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을 담고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모든 상황이 시련이라 느껴질지라도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는 벗들이 있기에 내일의 희망은 먼 것이 아닙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2003.03.16

선주 드림

고선주님은 통영여고 2학년으로 열정많은 청소년입니다. 현재 통영여고부 회장으로 진보적인 고등학생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옳은 길을 가는 동생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할거야"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

2월 28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는 농성장이 생겼다. 소위 '민혁당 사건' 관련 양심수 이석기님의 재판이후 이른바 '민혁당 사건' 가족대책위 분들이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바라는 서울구치소 농성단"을 꾸려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민중의 소리]

천막을 치려하자, 구치소 측과 경찰의 제지로 치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고 안타깝게 죽어간 대구 지하철 참사사건을 보며 현장에 기관사 한 명이 더 배치되었다면,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있었다면 하는 말이 구슬프게 회자되는 것을 떠올리며 참 이런 것은 확실히 대응하는구나 하는 가슴아픔이 몰려왔다.

봄비는 내리고, 노숙농성하는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하루 하루를 보냈다. 칠순이 넘으시는 양심수 하영옥 어머님, 대전에서 올라오신 양심수 임태열 어머님께서는 어려움에도 아랑곳 없이 아들사랑을 정의사랑으로 승화시키며 농성장의 기둥으로 자리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마치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 같았어. 이번에는 꼭 나올 줄 알고 태열이가 좋아하는 파김치를 담가놓았는데..."

그 파김치는 진짜 우리의 농담에서 잘 쓰는 파김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양심수의 석방을 기다리며 애간장 녹이다 꺽여버린 파김치말이다.

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래야 하는 것인가?

모름지기 새 대통령의 사면이란 이전 정권의 잘못된 법집행을 바로잡고 억울한 이들을 풀어줌으로써 국론의 분열을 통합하려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엉뚱하게 사면권 남발이네, 공안당국의 반발이 있네하며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파렴치범이나 비리사범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기간 잘못된 법집행의 책임자이자 국론분열의 장본인 공안당국의 뻔뻔함을 다시 한 번 더 보자는 심사는 더더욱 아니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기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감옥행, 수배행도 마다않고 지켜온 이들의 의견을 옳게 반영하는 '올바른 사면'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진정한 봄비를 맞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인지, 아마 광주교도소에서 갓 풀려나온 이른바 민혁당사건 관련 양심수였던 최진수님이 농성단 단장을 맡고 계신지도 모른다. 얼마나 한이 맺히었으면 옥독도 씻어내지 못한 채로. 건강도 추스르지 못한 채로 다시 노숙농성에 돌입한단 말인가?

"우리는 양심수가 전원석방되고 정치수배자들이 전원 수배해제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라는 그의 연설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다행히도, 3월 3일 많은 농성단과 지원자들의 노력으로 천막이 쳐졌다.

천막이 쳐지자 "야! 천국이 따로 없다"라고 농성단장은 말했다. '천막이 천국' 이란다. 하나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에도 이렇게 기뻐하는, 이 춥고 어두운 사회에 봄비를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양심수들이고, 그 지지자들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커다란 열매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왜 감옥에, 수배에 고통받아야 하는 가?

3월 5일 서울구치소 양심수 이석기님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이경진 누님은 밀려오는 답답함에도 여유를 잃지 않으려 한다. "옳은 길을 가는 동생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할거야"라는 누님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오늘따라 필자는 반문을 많이 던졌다. 답답해서였다. 필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리는 2시 집회에서 발언을 하였다. 말이 잘 되지 않았다. 양심수석방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오늘의 형국에 대한 자책감에서였다. 잘 해야겠다.

알립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5차 총회

일시 : 4월 26일 오후 3시
장소 : 기독교회관(구관) 2층 강당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의 정기총회가
오는 4월 26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구관) 2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단체인사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4월 산행

4 · 19!
민주의 함성따라 산을 오르고자 합니다.
4 · 19묘지참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언 제 : 4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 도봉산 진달래 능선
모이는 곳 : 우이동 그린파크앞
갖출 것 : 회비 5,000원 · 도시락 등
차 편 : 6번, 8번, 28번 종점

한상권교수님의 현대사 강좌

역사교육의 목적은
오늘을 잘 알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하기에, 오늘의 가까운 역사 현대사를
잘 공부해야겠습니다.

일 시 : 4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⑧번출구)

"이게 바로 우리가 책에서 봐오던 품성이라는 거구나"

유호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2월 16일 도봉산에 올랐다. 며칠 전 창희형에게서 전화를 받고 참석한 산행이다. 통화내용은 이랬다.

"장기수선생님들과의 산행에 나와라."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에 난 바로 "예." 하고 답해버렸다. 예전부터 양심수후원회와 같은 걸음을 걷고 싶었지만 몸이 게으른 탓인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터라 차라리 잘됐다는 심정으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산행에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정작 당일 약속시간보다 15분이나 늦어버렸다. 집에서 나올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첫 참석부터 불량한 모습이라니…

산행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상외로 많았다. 우연히 그린파크앞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범민련의 이종린 선생님, 권오헌 선생님과 여러 장기수 어르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부부에서부터 나와 비슷한 또래까지…

그렇게 시작된 산행은 비교적 완만한 코스로 이뤄져 있었다. 중간에 지팡이를 짚고 오신 한 권주환선생님이 먼저 내려가셨다. 다른 선생님들의 표현을 빌면 북한산을 수 백 번도 더 오르셨을 거라는 그 선생님은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오신 결과가 지금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리라. 어서 빨리 우리 젊은이들이 노력해서 선생님들의 살아생전에 통일조국건설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다.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등산을 하다가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다. 역시 내 또래의 사람들과 다니던 등산과는 사뭇 달랐다. 풍성한 먹거리는 이번 산행에서 새로이 경험하게 된 풍경이다. 더욱이 전날이 대보름이어서 한 회원님께서 오곡밥까지 지어오셨다. 그 뿐이 아니라 산속에서 족발을 먹을 줄이야… 족발을 먹던 창희형이 "이 뼈를 여기다 버리면 몇 만년 후에 학자들이 도봉산에 집돼지가 살았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농담을 던져 잠시 웃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서로의 소개시간을 가졌다. 엄마, 아빠를 따라온 두 아이를 제외하고는 내가 가장 어리다는 것,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이 많았다는 것(나 역시 민주노동당 지구당 상근자이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장기수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다. 유기진 선생님이 이산가족명단에 포함된 기쁜 소식, 이종린 선생님의 멋진 시 낭송 등 많은 선생님들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장기수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그야말로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선생님들이기에 자신을 과시할 만도 하건만 너무도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게 바로 우리가 책에서 봐오던 품성이라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이 생겼다.

서로의 인사를 마치고 '대북송금문제'를 주제로 간단한 토론을 한 후 하산을 시작했다. 비록 산을 오른 거리와 시간을 길지 않았지만 등산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였음에 틀림없다.

내려오는 길에 간단하게 뒤풀이를 하고 헤어졌다.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을 찾느라고 나 때문에 고생하셨던 한상권 교수님께 사과의 말씀도 전해야겠다. 내가 잘못된 정류장으로 안내해 같은 곳을 세 번이나 지나친 것이다. 우리를 본 한 회원이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한상권 교수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번엔 결코 어리버리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반성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홍은경 단국대 법사회학회 회원

총회시간에 후배가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현대사 강좌를 한다고 광고를 했었다. 4학년이 되면서 새내기들의 교사를 맡기로 한 나는 책임감과 아직은 많이 모자라고 무엇인가를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현대사 강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선배와 후배들과 함께 역사강좌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

처음 가는 자리에 늦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가는 도중에 선배가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곳이고 원래는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지런히 올라갔다. 강좌를 한다고 해서 약간은 딱딱한 의자와 칠판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돌계단을 하나씩 오르면서 만남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눈에 뜨인 것은 딱딱한 물건이 아니라 포근해 보이는 담요와 그 만큼이나 따뜻해 보이는 사람들의 미소였다.

4년 동안 민가협과 연대를 맺으면서 집회에도 참석했지만 장기수 어르신을 뵙는 것은 처음이었다. 항상 글 속에서만 알고 있었던 분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장기수 어르신말고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다. 가기 전에는 ‘학생들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착해서 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그 분들의 높은 열정에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번 시간에는 민족통일전선운동 중 식민지시대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신간회부터 시작해서 30~40년대 국외, 국내에서의 계속적인 자주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었다.

항상 현대사 책을 읽거나 얘기를 들을 때 드는 생각은 ‘왜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다. 하나로 뭉쳐야 할 시기에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갈라지고 조금 더 편한 삶을 위해서 권력자에게 붙어야만 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달보다 못한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실 입시를 위한 역사를 배워왔던 우리로서는 ‘현대사’ 라는 것이 매우 생소하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면서 그냥 넘겨졌던 페이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 둘씩 채워지는 것 같았다. 대학에 들어와서 4년 동안 법사회학회내에서 많은 부분을 채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강좌가 다 끝나고 광고를 말씀하시고 뒤풀이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왔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뒤풀이에 참석을 못하고 다시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너무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강좌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강좌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과 얘기를 통해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았다.

두 번째 모임이었지만 벌써 다음 달이 기다려진다. 다음 달에는 처음부터 뒤풀이까지 꼭 참석해야겠다.

한 · 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의 심각성

여주군 농민회

■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1. 칠레산 포도의 유입으로 가을, 겨울 농산물의 연쇄 가격폭락이 예상된다.

정부는 협정 체결에 있어 쌀, 사과, 배는 제외하였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포도와는 출하시기가 다르므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세계 수출 1위를 자랑하는 칠레산 포도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입되고 향후 10년간에 걸쳐 무관세에 이르게 된다.

겨울에 칠레산 포도가 들어오면 겨울 출하작물 우선, 감귤이 폭락할 것이고 배와 사과등 가을, 겨울 과일이 포도보다 먼저 가격이 폭락할 것입니다. 시설포도, 방울토마토의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도미노처럼 상반기에 집중 출하되는 딸기, 참외, 수박, 메론등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폭락할 것입니다. 지난 98년 12월 미국산 오렌지의 대량 수입으로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절반가격으로 폭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나오는 포도는 더이상 겨울을 위해 저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시에 출하될 것입니다.

※ 도미노 이론

▶한 품목이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품목이 연쇄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농산물의 경우, 대체성이 높기 때문에 감귤을 사러 나갔다가 포도가 싸면 포도를 사서 먹게 된다. 그래서 감귤이 안팔리게 되면 감귤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감귤이 배나 사과등 다른 먹거리의 대체가 되는 식으로 발전하여 결국 전체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2. 여름에 포도의 홍수출하를 유발시켜 여름 작물의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제 포도농가는 가을, 겨울에는 칠레산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저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 홍수출하를 하게 된다. 4월에 들어온 칠레 포도가 저장 유통될 것이고 국산 포도가 홍수출하됨에 따라 여름 작물의 가격폭락도 예상할 수 있다.

※ 홍수출하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저장성이 없어 오래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산품은 지금 못 팔면 두었다가 나중에 팔면 되지만 농산물은 지금 못 팔면 썩혀서 버려야 한다. 따라서 재고를 둘 수 없으며 헐값에라도 출하할 수밖에 없어 홍수처럼 출하하게 된다.

▶비용을 들여 저장한다하더라도 겨울의 칠레산과 경쟁할 수 없어 저장을 포기하게 된다.

3. 포도는 시작일 뿐 모든 밭작물의 괴멸을 가져온다.

관세가 감소하는 품목은 포도만이 아니다. 16년내 관세가 철폐되는 15개 품목, 10년동안 철폐되는 210여개 품목, 7년동안 관세가 철폐되는 50여개 품목, 5년동안 관세가 철폐되는 560여 개 품목,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250여 개 품목 등 총 1080여 품목이 관세가 철폐된다. 포도하나만 해도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도 남으련만 1080개의 품목이 낮은 관세를 무기로 밀려들어올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 관세가 철폐되는 것들…

▶10년내에 관세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딸기, 토마토, 당근, 오이, 순무, 부추, 호박, 감자, 각종 절화류(백합 등), 키위, 사과주스, 포도

즙…

▶5년내 관세철폐 → 배추, 상추, 무우, 버섯, 김치, 고사리, 튜울립, 백합, 장미, 난초, 카네이션, 절화류, 개, 토끼, 뱀, 자라, 물과 얼음, 맥주, 소주, 탁주…

▶향후 3년간 관세없이 무관세로 일정량을 도입하는 품목들 : 관세 철폐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무관세로 일정량을 의무도입하는 것. 소량이라도 무관세이므로 가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격 폭락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 등 대부분의 축산물과 자두(280톤), 감귤(100톤)…

■ 이후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미치는 영향

1.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미국은 자국의 과일산업 보호를 위하여 칠레와의 협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 (EU)은 칠레와의 협상에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하였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농업강국임에도 농업피해를 우려하여 칠레를 피해갔는데 우리는 농업이 그토록 자신있어 1080여 개의 품목을 관세철폐하기로 약속한 것인가.

※ EU의 협상조건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 농산물 520개 품목을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TRQ 제공이나 관세감축 등 시장개방 일정을 DDA 협상 이후로 미룬 상태이다.

▶그밖에 TRQ는 제공하지만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223개에 달한다.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하였다.

2. 미국과 중국도 칠레와 같은 조건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통하여 과일 산업을 중심으로 몰락하는 길을 걷고 미국에게는 곡물과 오렌지를 내주고 중국에게는 채소와 마늘, 양념을 내줄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제정신이었다면 1080여개의 품목에 관세철폐를 하는 이런 협정내용에 사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칠레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놓고 미국에게는 하지 않겠다면 말이 되겠는가. 곧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농업도 죽지만 우리 공산품도 살아남을 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농업도 죽고 공업도 죽는 가운데 몇몇 거대기업만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업을 위한 일도 아니며 민족을 위한 일도 아니다. 거대 독점자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며 거대 독점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잔치에 전국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이후 WTO협상 (DDA)에 미치는 영향

1. 관세철폐에 동의해준 정부가 WTO관세감축에 반대할 명분없다.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에 1080여개의 품목 관세철

폐를 해준 정부가 관세감축을 논의하는 WTO협상(DDA)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오는 9월 멕시코 WTO협상에서는 관세감축율을 낮게 만들기 위하여 전세계 농산물 수입국들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강도적 주장에 맞서 EU와 일본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맞서고 있다.

한 · 칠레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은 이러한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 WTO 협상쟁점(관세감축분야)

▶미국 주장 : 관세 상한 25%(개도국은 125%)

▶WTO 의장 : 관세감축율 40% ~ 60%(개도국은 30% ~40%)

▶우리 나라 : 관세감축율 36% (개도국은 24%)

2. WTO 협상 결과에 무관하게 개방이 확대 가속화된다.

관세철폐라는 것은 관세감축율이 100%라는 것을 의미한다. 10년내 철폐는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10% 감축되고 매년 10%씩 관세가 감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내 관세철폐는 매년 20%씩 관세가 감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는 5년 10년 뒤의 일이 아니라 예정대로라면 오는 6월부터 관세감축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WTO에서 협상하는 관세감축율은 WTO 의장이 제안한 60%가 높으니 24%로 낮춰달라고 빌고 있고 그나마 개도국지위를 못받으면 36%로 할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다. 그런데 칠레와는 100% 관세감축율을 동의했으니 WTO협상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년간 10% ~ 20% 관세 감축받은 1080여개 품목들은 WTO 협상결과를 이미 떠나버린 것이다. WTO 협상에서 연간 2.4% 감축이나 6% 감축으로 세계가 밀고 당기는 것이 한 · 칠레 자유무역 협정에서 보면 웃기는 일이다.

※ 관세개방 "최소율의 법칙"

▶작물의 양분에 다른 성분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작물은 가장 작은 성분이 작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듯 관세도 가장 낮은 것에 적용을 받아서 개방되는 원리

▶낮은 관세가 가능한데 높은 관세를 물고 들어올 바보는 없다. 따라서 여러 제도중 가장 낮게 관세를 무는 방법으로 수입될 것이다.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진 1080여개 품목은 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WTO 협상과는 이제 무관해 졌다.

■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이후 쌀 재협상에 미치는 영향

1. 4월이 무너지면 9월이 무너지고, 9월이 무너지면 2004년 쌀 재협상도 무너진다.

4월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회비준을 통과하고 나면 그것은 포도농가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배, 사과, 감귤등 과수농가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축산과 밭작물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농업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9월 DDA협상은 저항할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9월은 올 것이며 9월 WTO 5차 각료 회의(9.10~9.14, 멕시코)에서 관세감축율이 결정될 것이다.

9월 WTO 협상에는 쌀의 재협상에 단서가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제안서에보면 전략품목의 경우 6.7%의 관세감축율을 적용하자는 대목이 있으며 이 전략품목은 쌀이나 마늘을 의미한

다고 했다.

이미 정부는 9월 협상에 쌀의 경우 관세감축율 6.7%에 개방안을 제시한 꼴이 되었다. 정부는 2004년 쌀재협상의 경우,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관세감축율 6.7%라도 얻어놓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리석게도 정부의 안을 다 보여주었다. 2004년 미국이 한국의 주장대로 하자고 하며 관세감축율 6.7% 개방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2. 두 번 양보를 얻어내기는 더 어려운 법이다.

정부는 전략품목의 경우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고 전세계 개도국과 농산물 수입국과 연대하여 비교역적 관심품목(NTC) 인정을 끝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비록 관철되지 않을 지라도 그것이 훗날을 생각하는 태도이다. 어떤체계도 영원한 것은 없다. WTO협상이 종료된 후라도 NTC주장은 계속되어야하며 반드시 얻어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항복선언부터 한 꼴이 되었다. 9월협상의 결과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하고 다른 나라가 자기주장을 함으로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 주장을 남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리 제시조차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우리의 협상여지를 스스로 좁힌 꼴이 되었다.

정부의 방식대로하면 우리는 미국에게 9월에 한번, 2004년에 한번해서 결국 두 번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그것은 한번의 양보보다는 더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상식이 아닌가. 정부는 벼랑끝 협상은 아니라도 벼랑근처라도 가서 협상을 해야할 것인데 아예 위험하다하여 근처도 가지 않고 협상하고 있다. 그저 강대국의 논리를 도와주며 그 대가로 선처만 바라고 있을 뿐이다.

■ 한 · 칠레 자유무역 협정반대 투쟁 방향

미국은 몰락하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도 전 세계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통일시대는 농업회생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북한의 가장 취약한 농업으로 하여 남북이 농업교류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그것은 남도 살고 북도 사는 길이 될 것이며 우리 농업에는 활로가 될 수 있다. 생산과잉이 아니라 남북농업을 합쳐서 보면 생산부족이며 남의 과잉농산물을 북과 나눠먹으며 그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만큼 농업회생의 큰 힘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북의 광업과 교류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인 상생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한국의 농업은 통일과 더불어 회생 가능의 길에 한 발자국씩 다가서고 있으며 통일시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산업으로 대접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희망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미국과 정신나간 정부의 책동에 휘말려 뿌리마져 뽑힐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업을 포기한 정부는 농업을 세계화시대에 처리해야할 암환자로 여기고 있다. 비싼 병원비를 들이며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안락사 시키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또한 환자에게도 이롭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팔에서 링겔을 뽑고 퇴원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고비를 넘기면 희망의 고지가 멀지 않았다. 마지막 꼭대기를 넘는 것은 너무도 힘들지만 멈추거나 좌절할 수는 없다. 전농의 3만 활동가와 회원들의 굳은 의지와 각오가 아니면 이 산을 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뒤에는 4백만 농민이 있다. 우리는 4백만 농민을 태운 열차의 기관사와 같다. 우리가 4백만 농민의 생사를 쥐고 있는 것이다. 죽고 살고는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 4월 국회비준거부에 전농의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우리는 한 · 칠레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이 포도농가의 일이 아니며 우리 농업 전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임에도 그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밝혀진 바와 같이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을 파탄시키기에 충분한 불씨로 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과수를 하는 농가조차 그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뜨거운 맛을 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불기둥은 이미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오르고 있다. 결국 수많은 농민들이 죽고 다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농민들을 살릴 단 한번의 기회가 남아 있다. 그것은 국회비준 거부이다. 그러하기에 전농의 모든 활동가들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회비준 거부에 나서야 한다.

1. 4월 승리는 9월 승리의 전제로 되고, 9월 승리는 2004년 쌀재협상 승리의 담보로 된다

한 · 칠레 자유무역 협정은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기초가 됨은 물론이고 올 9월의 WTO 협상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우리가 4월에 패배하게 되면 9월에 승리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쌀재협상이 2003년 9월 협상에도 거론되는 만큼 절대로 물러설 수도 없다.

2. 국회비준 거부투쟁 승리할 수 있다.

2월 15일 현재, 88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 칠레 자유무역 협정 비준거부에 서명하였다. 전체 국회의원 272명중 과반수인 137명을 확보하려면 49명의 서명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가 미국에 지는 것도 아니고 WTO 세계에 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국회의원들이 용인함으로서 4백만 농민의 생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우리 전농이 49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추가로 받아내지 못하여 4백만 농민들이 죽어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2004년은 총선이 있다. 우리 농민들의 팔을 비틀고 목이 조이는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한 국회의원은 누구이며 비준한 당은 누구인가 4백만 농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WTO국민연대와 민주노총 한총련을 비롯한 민중연대 또한, 도시지역구의 의원들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은 2004년 4월이 총선이 아니라 2003년 4월이 총선이라는 심정으로 국회의원들을 단죄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자각하기 시작했으며 쌀이외의 작목의 피해가 큰 만큼 농협을 비롯한 한농연과 작목반, 각종 협회등 농민단체들간의 연대계기가 주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쌀대책위와 마을 이장님들의 동참이 이어진다면 국회의원들이 4백만 농민을 짓밟을 수는 없다.

3. 국회비준 거부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지난 3월 1일 터키의회는 이라크 침공을 위한 미국의 터키 기지 사용을 국회에서 비준 거부함으로서 미국의 잘못된 전쟁욕을 잠재웠다. 또한, 대북 송금 관련한 특검법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다. 국회의 결정에 대통령

은 거부권으로 맞설수 있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국회는 비준 거부로 맞설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며 3권 분립의 정치인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퇴임 10일을 남겨놓고 무책임하게 저지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하여 비준거부로 맞서야 한다. 이미 동참한 88명의 의원에게는 참사와 동참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심판을 내리자.

4. WTO 협상이 9월인데, 무엇이 바빠서, 5개월을 못 참고 4월에 국회비준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WTO협상을 잘 끌어내고 그 결과를 참고하고 기초하여 그것에 비추어 관세감축율을 정하고 개방정도를 정하여도 늦지 않으며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보지 않고 우리부터 옷을 벗고 설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EU는 칠레와의 협정에서 농산물 520개 품목을 WTO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으로 설정하였다.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하였다. EU는 농업이 상당한 나라들임에도 농업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이상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 농업을 즉사시키자고 작정을 하고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서야 어쩌면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협상을 한단말인가.

5. 이번 칠레와의 협정 내용은 공업을 위한 일도 국민을 위한 일도 아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 칠레 무역수지는 2억불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칠레인구는 한국에 비해 32%, 1인당 GDP는 56%,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하여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우리 공산품은 칠레시장에서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여력이 크지 않다. 실례를 들자면, 국내 공산품은 칠레시장에서 전자렌지 69%(1위), 세탁기 65%(1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C 시장점유율도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도 일본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31%)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칠레는 단일관세부과체제를 가진 나라로 현재, 전품목에 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 6%, 2010년에는 전품목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우리가 굳이 농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몇 년 앞당겨 공산품의 무관세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실정이다.

▶공업에서 얻을 것은 적고 농업에서 잃을 것은 많다.

칠레는 세계 수출에서 포도 1위, 자두 2위, 사과·배·키위 3위, 복숭아와 체리는 5위를 차지하는 농업대국이다. 뿐만 아니라, 칠레의 수출을 주도하는 경영체들의 평균 경지면적은 10,150ha로 우리의 7,800배에 달할 정도로 칠레농업은 막강하다.

37분 거리에 둔 내 고향 마을, 6년 만에 잠시 돌아간 대학

유영업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 정치수배 7년째

농성 2년, 돌아온 것은 수배자들의 계속된 참담한 연행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수배생활 중 지난해 3월 목포에 있는 대학에 돌아가 얼마간 생활했다. 97년 5월 3계급 특진에 수 천 만원의 현상금이 걸려 대학을 떠난 지 6년 여 만의 일이다.

'인권대통령' 임을 자부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정치수배 해제에 대한 기대 속에 여러 활동을 했다. 하지만 취임 초기 대통령 사면 등 이후 여러 차례의 사면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제외되었다. 2000년 4월 전국 600여명의 정치수배자들과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던 때는 명동성당에서 노상 천막 농성을 하였고 가족 모임이 진행되고 각계의 탄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농성 2년여 동안 돌아오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 소식이 아니라 350여 명에 이르는 수배자들의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이라는 참담한 소식뿐이었다. 나 또한 농성과정에서 '병든 몸이지만 내가 나가서 표를 찍으면 우리 외손자 볼 수 있다' 하시고 정권교체 소식에 기뻐하시며 마지막까지 손자를 손꼽아 기다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망연자실 주저앉아야만 했다. 남북정상 간의 만남과 노벨 평화상 수상 등 사회적 변화와 인권보장에 대한 국민적 바램 에도 불구하고 정치수배자들은 밤낮으로 쫓겨 다녀야만 했다.

결국 우리는 국제사회에 '인권국가' 라 허울 좋은 소리만 외치는 김대중 정부의 모습에 실망하며 다시 수배생활을 감수하고 명동성당을 빠져 나와야만 했다. 그리고 긴 생각 끝에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쫓기는 몸이 아니었다면 내가 해야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두 학기를 남겨두고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던 대학에 돌아가 잠시 생활하기로 하였다.

▲ 연설하는 유영업 군.

그동안 잊어버렸던 나의 지난 모습들, 수배 이후 계속되지 못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구체적인 현실생활을 하면서 살아 있는 나를 느끼고 싶었다.

수배생활로 보내버린 20대

비록 정치수배가 해제된 몸이 아니지만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대학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이동 도중 연행에 대한 긴장보다는 온통 설레 이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목포 앞 바다의 짠 내음과 개나리 꽃 넘실대는 유달산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청춘의 열정과 포부로, 가끔은 이유없이 힘든 마음으로 누볐던 대학이 많은 추억과 함께 정겹게 스쳐갔다.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마음 속으로 그려왔던 순간인가!

이제 어두운 그림자처럼 움츠리고 고개 숙이며 골목골목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골방에서 세 달 동안 지내며 누구라도 좋으니 말 한번 건네 보고 눈 한 번

마주치고 싶어 무작정 뛰쳐나가지 않아도 된다.

긴 겨울바람 차가운 거리를 발자국 소리 죽이며, 주린 배 웃음으로 넘기며 걷지 않아도 된다. 수배 초기 몇 년 동안 악몽처럼 계속되었던 검은 양복을 입은 형사들에 밤새 쫓기지 않아도 된다. 불규칙한 식사와 불안한 잠자리에 위장이 나빠져 수 년 동안 된장국에 감자만 넣어 끓여 먹지 않아도 된다. 태어나 한번도 보지 못했던 조카들 이름 잘 간직하기 위해 하나 둘 불러보는 것도, 중학생의 어린 모습만 기억하다 어엿한 아가씨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여동생을 알아보지 못해 모른 이 보는 듯 멍하게 보다 뒤늦게 알아보고 가슴아파 하지 않아도 된다.

흐린 거울에 수배로 이 십대를 보내고 변해 가고 있는 모습을 비춰보며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가라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당당히 가라' 고 애써 다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시는, 이제는… 답답한 현실이 모두 끝난 듯 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모교 교정, 모든 것이 기쁨인 학교 생활

벚꽃이 피기 시작한 캠퍼스, 환하게 웃으며 걷는 학생들,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두 손 꼭 잡고 다정하게 거니는 연인들의 모습…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혹여 너무 시간이 지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잠시 이게 얼마 만인가 하시며 반겨주시는 교수님들과 친구들, 첫 만남이지만 함박 웃음 지으며 맞아주는 후배들의 따뜻한 마음에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주인도 바뀌고 맛도 좀 달라졌지만 재학 시절 자주 들렀던 음식점도 가보고 조기 축구회를 만들어 좋아하던 축구시합도 했다. 대학 새내기들과 어울려 잔디밭에서 고기도 굽고 기타 치며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배가 터져라 웃으며 밤새 윷놀이도 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을 들여놓고 책사랑 운동을 시작하고, 새롭게 동아리 회원도 모집하고, 학교 식당서 아르바이트하며 아주머니들 사시는 얘기도 들었다.

그저 걷고 웃으며, 사람들과 만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나에게는 기쁨이었다. 캐비넷 하나를 옷장으로 대신하고 대학 학생회관 한켠에 생활 방을 두어 생활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7년 간의 수배로 존재마저 지워진 가혹한 현실

하지만 웃음 속에도 '정치수배' 의 굴레는 결코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배로 인해 6년 간 행방불명 처리돼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고 이름이 없는 나는 학교 등록에서부터 은행에 찾는 일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조금이나마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고 싶었던 나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부모님과 사회단체, 학생들의 도움으로 다시 신분을 확인하고 재입학을 하게 되었지만 긴 시간 쫓기며 돌아온 나로서는 존재마저 지워진 현실에 정말 가혹하구나 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차단된 생활의 연속.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문제로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것이다.

학교서 고향 집 까지는 불과 37분 거리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아들 보시겠다고 아픈 몸 이

끄시고 오시는 부모님을 학교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살랑 살랑 바람이 불면 조는 듯 눈을 감고 마냥 행복해하고 저만치서 나를 부르시던 어머님의 목소리를 간절한 추억으로 그리워했던 고향이지만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었다.

회갑을 맞이하셨지만 자식 돌아올 때까지 잔치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어머님께 학교에서 꽃다발 안겨드리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다.

갈퀴손에 고된 농사일 마치고 저물어 가는 언덕길 걸으시며 소식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자식 생각에 가슴 아파 하시며 외로이 늙어 가실 부모님 생각에 남몰래 눈물 훔치며 그리워했지만 막상 가까이에 있어도 갈 수가 없었다. 6년 만에 찾은 대학, 그리고 37분 거리에 있는 내 고향 마을.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정치수배자이기에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은 한없이 멀기만 했던 것이다.

자식보다 힘들게 싸우는 자랑스런 부모님

16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면서 수배 7년째 되는 해 다시 나는 행방불명자가 되어야 했지만 다른 수배자들과 함께 한총련 이적규정과 정치수배로 인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시 알리기 위해 다시 짐을 꾸렸다.

"음,이것은 서울로, 이것은 집으로…"

다시 빈 박스를 구하고 옷가지들을 하나, 둘 넣으며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그렇게 겪어온 일인데 다시 떠나기 싫은 듯 아주 오래도록 짐을 꾸리고 있었다. 다른 이의 짐처럼 그냥 내버려두기도 하고,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어차피 내가 꾸려야 할 짐이었다.

서울에 올라가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아들 보기 위해 아픈 몸 이끌고 오신 부모님 앞에서, 새벽부터 준비 하셨을 음식을 아무렇지 않은 듯 게걸스럽게 먹어 해치웠다.

예전 같았으면 목놓아 우셨을 어머님과 아픈 눈으로 지켜보셨을 아버님이 끝까지 웃음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에 자식보다 더 힘들게 싸워 가시는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가슴아파 안아 드렸다.

자유로운 몸으로 고향마을에 가고 싶다

그리고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호응 속에 새롭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조치들이 하나 둘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제도, 새로운 생활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과거 김대중 정부처럼 겉으로만 '인권국가' 를 말하다 결국 기만하여 지탄받을 것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이 통하고 인륜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깝게는 이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조건 없는 정치수배 전면해제〉 조치로 전국의 175명의 정치수배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란다.

이제는 자유로운 몸으로 긴 수배생활을 뒤로하고 흙냄새나는, 풀씨가 날아다니다 멈추는 고향마을에 가고 싶다.

〈 범민련남측본부기관지 '민족의진로' 에 실린 글 〉

유영업님은 현재 한총련관련 정치수배자 모임 대표로 2003년 2월 6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 사무실 을 개소하여 180여명에 이르는 한총련관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행증

이 그림은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이런일이있었어요

2003년 2월

01 민족명절 '설날'이었습니다. 건강과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기 빕니다.

02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 황선씨가 2년6월의 옥고를 치루고 만기출소 했음. 0시, 서울구치소에서 부모님과 덕성여대 학우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의 마중을 받으며 옥문을 나오다. 덕성여대 총학생회 간부의 사회로 환영시간 가짐. 권오헌, 진관스님 순으로 환영사, 아버님 인사말. 황선 대표 출소인사와 기념 촬영들이 있었음. 인덕원 네거리 음식점에서 식사 겸 2차 환영시간 가짐.

- 후원회원들 박용길 장로님, 유기진 선생님댁 설 인사드림.(한상권교수, 이용준, 김호, 고광희, 이창희, 한수정, 권오헌 함께)
- 미국언론들은 토마스 파고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에게 '1개 전투기 대대의 한반도 주변증강'을 요청했다고 보도. 또한 공군중심으로 2000명을 증강하고 B-52와 B-1 폭격기 24대를 태평양상의 '괌' 기지로 이동시키며 'F-15 전투기 8대와 U-2기 등 첩보기를 한국과 일본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CBS〉방송이 보도함.

03 권오헌 회장, 민가협 어머님들과 함께 박용길 장로님께 설 인사드리고 윷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냄.

04 광주교도소 최진수님 면회를 김미성 간사와 광주 양심수후원회 박상춘사무국장 다녀옴.

05 범민련 남측본부는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 2003년 범민련 남·북·해외 임시공동의장단 회의 결정서 등 해설하다.

- 대통령취임 양심수대사면을 촉구하는 글 언론사, 청와대, 민주당 등에 송고.
- 정치수배자모임 거래통장 개설하다.(조흥은행, 우체국)
- 금강산 육로관광길이 뚫리다. 이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을 비롯한 통일부 관광공사업계 관계자등 육로관광 사전 답사단 86명이 북쪽에서 넘어온 9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남쪽 임시 출입국 관리시설을 지나 5.8km 지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39.4km를 1시간 20분에 달려 북쪽 관리시설에 도착, 1박 2일 일정에 들어가다.

06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정치수배자 사무실' 개소식 열다. 97년 제5기 한총련의장 권한대행 유영업(목포대학생회장)사회로 민중의례, 사무실 열게된 인사말이 있은 다음 임기란, 권오헌의 격려말 5년수배 경상대 총학생회장(한총련 조통위원장) 이동진씨 누나 이주연씨의 가족인사, 연세대부총학생회장 박선태현의 고사문 낭독등이 있었음. 이 사무실은 정치수배자들의 합법 활동공간으로 인터넷카페, 전화개설, 전국 184명 수배학생 소식 등 한시적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음.

- 미대사관 앞에서 자통협, 평통사 등 공동으로 '대북전쟁 획책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력증강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목요집회(458회) 열다. 여는말-임기란전상임의장, 노동자, 학생, 농민,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국가보안법폐지에 국민여러분의 참여를 호소 -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조직국장 황인덕, '학생회장이 되면 바로 수배자되는 법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 노당선자에게 정치수배자해제 촉구-방영숙(최원석 학생 어머님), 부산대 1년 김근주 학생이 보내온 '윤영조 학생의 정치수배해' 탄원서 낭독 - 성균관대 1년 박서은, 감옥 안의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의 문제해결 연설- 황선(2/2출소).
- 충남대학교 2002년 문과대 학생회장(한총련 대의원)이 5일 부친상을 당했지만, 정치수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빈소에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음.

김세룡 학생은 빈소에 들렸다가 경찰이 잡으려하여 빠져 나왔다고 전해옴. 그러나 경찰에 잡히더라도 빈소를 지키고 아버님장례를 모시라고 당부하다. 김세룡 학생, 동료 학생들과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다시 빈소에 가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핵폐기장 후보지역 주민들과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핵폐기장 철회와 핵발전 추방을 위한 반핵국민행동 출범식을 갖고 전국규탄 대회를 열다.

07 홍익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범청학련 황선대변인 출소환영식이 열림.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사회로 오신분 소개, 김선분(범민련), 권오헌(양심수후원회), 윤한탁(실천연대) 선생의 환영사, 영상소개, 학생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황선 대변인의 답사 등이 있었음.

-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인간방패' 반전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한상진(37), 남효주(17), 이영화(42)씨 등 한국-이라크 반전평화 팀 세명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바그다드로 떠나다.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진압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조문익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집회저지를 이유로 경찰이 행한 물품탈취행위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현행범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08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집행부 주례모임-양심수석방운동, 정치수배자 사무실 지원문제, 국가보안법철폐 투쟁건, 후원회소식발간, 한총련합법화 기자회견건 등 협의.

-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토요캠페인, 양심수후원회와 김대원 대책위 등 함께함. 변의숙, 이용준, 한수정, 김미성, 송창학, 오영순, 이창희, 김수룡, 권오헌 함께함.
- 봉천동 '우리탕제원'에서 옴시롱감시롱 2월모임이 있었음 - 김혜순 새으뜸일꾼이 뽑힌 뒤 첫모임으로 2월 22~23일에 아산, 청양, 공주지역으로 겨울기행가기로 합의.
- 홍익대 문화회관에서 고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김양무열사 3주기 정신계승 문화제 열리다.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생님께 매오로시에서 문병을 다녀옴.

09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이 주관하는 한상권 교수의 역사강좌가 있었음.

-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11기한총련(건) 중앙의원 결의대회가 열리다. 이어 한총련 전국 정치수배자 총회를 정치수배자모임과 11기 한총련(건)이적규정철회 투쟁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대표 참관하며 격려사 하다.

1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문에서 한국 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주최로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규정 부당성과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여는말, 전상봉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견서 제출하다.

-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제1차 정치수배자 총회준비모임과 11기 한총련(건)이적규정철회 특별위원회 공동으로 한총련정치수배 해제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유영업씨 사회로 이동진. 유영업 누님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드리는 호소문 낭독,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정치수배해제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기자회견이 끝나고 호소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접수시킴(이창희 간사, 이동진 누나, 신승헌 어머니 등)
- 종로 통의동 음식점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

연대 주관으로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계승연대 추천분과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다.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 이병주씨 사회로 권오헌 상임공동대표 격려말. 4개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명예회복법재정과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유토론과 각 분과별로 문제점, 지향점 등을 토론하다.

11 미 대사관 앞에서 이라크 전쟁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700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림.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SOFA개정 국민행동 등 공동주최로 '대북전쟁획책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력증가규탄, SOFA개정촉구 반미연합집회' 열리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4차 회의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단장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주관하는 환영만찬에 함께함.

12 세실레스토랑 다이아몬드룸에서 한총련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와 11기한총련(건)의 공동으로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강위원 집행국장의 사회로 오종렬의장의 인사말 11기한총련조통위원장 이영훈학생의 인사말, 권오헌, 홍근수대표의 의견서 낭독. 이영훈학생의 11기 한총련의견서낭독에 이어 기자들의 질의응답 그리고 연세대, 홍익대 두 총학생회장의 한총련입장 발표가 있었음.

- 후원회소식지 136호 최종교정 넘기다.

13 민가협 459회 목요집회 열다. 시작공연 - 노래패 '우리나라', 한총련문제해결, 정치수배해제와 7년째 수배중인 아들위한 노당선자께 드리는 글 낭독 - 홍동자어머니 (고려대 송영환학생). 이정자어머니께서 보내온 아들인 6기한총련의장 손준혁학생 석방을 위한 탄원서 낭독- 이귀임(백주선학생 어머니), 한총련을 방어 연설- 2002 성공회대 학생회장 김건표 학생, 충남대 김세룡 학생 친구 김충한 학생이 보내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탄원서 낭독(이 땅의 젊은이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노래패 우리나라

14 한총련합법화 문제와 관련 국회로 임종석, 이재정, 이종걸, 이부영, 안영조 의원 등 만나 의견 나누고 합법화 조치에 적극 힘써줄 것을 촉구(권오헌, 한총련 통일위원장 이영훈)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 소식 136호 발송작업 (김숙희, 김민정, 이승미, 이일규, 김미성, 왕준영, 이창희)
- 정계, 재계 외교사절 등 각계 초청인사와 내외신 취재단 현대아산 임직원 등 478명의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단이 동해안 임시도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에 들어가다.
- 전국 농민회 총연맹소속 농민들은 독립문공원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전국농민대표대회'를 열고 식량주권을 외치며 광화문 정부청사 쪽으로 거리행진을 하다.

15 양심수후원회 집행부 주례모임 대학로 식당에서 열림. 대통령취임 사면 촉구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상황, 한총련 합법화, 정치수배자모임 사무실 개소 등 문제 협의

- 후원회 소식 136호 발송하다.(국내 1,167통, 국제 18통)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여중생 범대위 공동으로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라크 공격반대 한반도전쟁위협반대 '2·15 국제공동 반전평화 대행진'이 열림. 마로니에 반전평화를 마치고 8000여명으로 불어난 참가자들이 종묘공원까지 행진하다. 이어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된 '2003 자주와 반전평화기원' 대보름 촛불시위장으로 옮겨 효순이 미선이 추모와 소파

개정, 부시사과, 반전평화 집회를 열다.

- 양심수후원회원들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석방 토요캠페인을 마치고, 일부 회원은 교보문고 촛불시위에 합류하고, 일부 회원은 연세대 정치수배자 모임 사무실에 격려 방문하다. 주경임, 송창학, 송인영, 송인석, 변의숙, 이진, 김민정, 김숙희, 이일규, 김미성, 이창희, 권오헌 함께함.

16 양심수후원회 2월 산행의날 - 우이동 그린파크 앞에서 21명이 모여 우이능선 - 할미봉 - 우이계곡 - 우이동으로 내려오는 산행. 할미봉 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개시간과 시사평가시간- 대북송금 논란에 대해서 뒤풀이로 산행 모두를 마침. -권주한, 유기진, 이종린, 서순정, 김수룡, 변숙현, 송창학, 주경임, 송인석, 송인영, 변의숙, 한수정, 신현익, 이득형, 양계숙, 이창희, 유호근, 이중섭, 송세영, 한상권, 권오헌 함께 함.

-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소속 노동자 5000여 명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동대문 두산타워까지 행진을 한 뒤 '살인 두산재벌', '손해가압류' 등 구호 아래 의관을 불태우다.

17 0시, 이른바 민혁당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아 2년6월의 옥고를 치루었던 최진수씨가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다. 서울, 성남, 광주, 부산 등에서 50여 명이 마중한 가운데 최진수씨의 인사말과 권오헌, 오종렬 의장의 환영사, 기념촬영을 하고 식당에서 환영 뒤풀이를 하며 가게 대표 환영사를 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이정태, 정형근, 권오헌이 함께 했음.

18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변, 민교협, 학단협, 민주노동당, 개혁정당등 공동으로 한총련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최병모 민변회장과 학단협 등의 의견서 낭독이 있었고 민주노동당과 개혁정당 참가대표의 한총련이적규정 부당성 발언 등이 있었음.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대표단과 민가협회원들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 정부분과위원회 김병준 간사와 박범계, 이은영 위원을 만나 국가보안법철폐와 대통령취임사면에서 양심수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사면·복권 할 것을 촉구하다.(조순덕, 임기란, 이영, 홍근수, 박교수, 오창익, 권오헌 함께)

- 대구 지하철 방화로 120여 명이 숨지고 140여 명 중경상 그밖에도 많은 실종자가 있어 사망자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19 연세대학 학생회관에서 정치수배자 공개검진과 정치수배해제촉구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한총련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 주관으로 열다. 이산라(단국대)학생사회로 권오헌 인사말, 유영업(모임대표)의 취지해설 영상 상영, 공개 건강검진 추진과정(송용한) 등이 있었고 수배자들과 기자들의 검진관련 간담회가 이어졌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회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다. 활동보고, 재정보고에 이어 대통령취임사면촉구와 한총련 이적규정, 정치수배해제 문제 등 협의. 또한 운영위원들과 기획모임의 유기적 활동방안 등 논의. 15차년도 총회준비위 구성(지도위원, 감사, 운영위원, 간사), 사업계획안, 3·1민족대회 진행 계획안 등 토의.

- 노무현 당선자는 대한상공회의 초청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공격은 한반도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검토 자체도 반대한다' 고 밝힘.

- 대전지역 양심수후원회 사무실에서 오전 11시 양심수후원회 전국연대회의가 열리다. 대전 양심수후원회 임나리간사, 대구 양심수후원회 곽은경간사, 광주 양심수후원회 박상춘 사무국장과 이창희 간사가 함께 하여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폐지 등

에 대해 논의함.

20 향린교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열다. 대표자회의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분과위원들과의 간담회 보고(권오헌)와 기자회견문, 사업계획안검토 등이 있었고 이어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다. 박석운 집행위원장 사회로 인사말(홍근수, 최영도), 양심수현황보고(권오헌),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 발표(김용수), 기자회견 낭독(최병모) 순으로 이어짐.

- 민가협 460회 목요집회, 인권·사회단체와 양심수 사면을 촉구하는 연합집회로 열림. 여는말 - 조순덕상임의장, 6년째 수감중인 박경순씨가 아들 정우에게 보내온 편지글 낭독 - 꽃다지, '새 대통령 아저씨, 우리 아빠를 돌려주세요' 편지글 낭독-박정우(박경순씨 아들), '더이상 아이들이 감옥에 아빠를 두고 마음아파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편지글 낭독 - 김소중(하영옥씨 부인), 수배 중인 김세룡학생이 노무현 새대통령께 보내는 편지글 낭독- 김세룡학생 친구, 노래공연- 노래패 '꽃다지', 양심수, 정치수배자가 없고 사회단체탄압 없는 사회 만들어주길 호소 - 박사옥(한청부의장 홍순석씨 부인), 새 정부의 양심수사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낭독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쟁의국장 현인덕
- 금강산 온정각에서 제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모임이 열리다. 남·북이산가족 461명과 북쪽상봉단 99명이 만나다. 남쪽상봉단은 동해육로를 이용해 금강산으로 떠났음.
- 옴시롱감시롱은 2000.9.2 북녘으로 송환되어가신 김선명선생님의 생신을 맞아 축하광고를 내다.

21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와 사무국장, 간사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위원장을 면담하고 진상규명 격려와 간담회를 갖다. (오종렬, 남상헌, 권오헌대표와 박희영 사무국장 등)

- 명동 향린교회에서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표자회의(2003년총회)를 열다. 3·1민족대회 관련보고에 이어 안건으로 2개 통일연대사업보고 및 사업평가심의하고, 개정규약안 심의 3기 통일연대 사업계획안 2기 결산안등 심의, 이어 3기 간부인선안 등 심의 통과시키다.
- 소식지 편집모임을 인사동 만복정에서 갖고 소식지평가와 역할 분담에서 대해서 논의함. 오수강, 하재광, 이창희, 이승미, 김호, 김미성, 김현희 등이 참가함.

22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집행부 주례모임 갖다. 후원회소식 137호 발간기획, 15차 총회준비건, 대통령취임사면촉구 투쟁안 등.

- 매오로시가 인천 나사렛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생님께 문병을 다녀옴.
-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토요캠페인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함.
-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살인미군처벌, 부시공개사과, 소파전면개정, 이라크 침공반대, 한반도 전쟁위협반대, 민족자주 반전평화주가 선포식 갖다.
- 옴시롱감시롱은 아산, 청양, 공주지역 문화유산답사와 칠갑산 등정의 겨울기행을 1박2일로 진행하다.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맹사성 고택과 송악면 외암리 민속마을(1978년 충남 민속마을로 지정- 1988년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제2호로 지정)을 답사하고 청양칠갑산 자연 휴양림에 도착 '만남의 집' 빌려 저녁식사 지어먹고 뒤풀이를 하며 밤을 보내고 23일엔 칠갑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신라 문성왕 12년(850년)보조선사 체징에 의해 창건된 장곡사를 답사하다. 장곡사엔 국보 58호인 장곡사 철조 약사여래좌상 부석조대좌와 국보 300호인 장곡사 미륵불쾌불탕이 있으며 상·하 대웅전이 따

로 있었음. 이슬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있는 날씨 었지만 어린이들까지 칠갑산 정상(561m)을 등정하다. 산 전체가 울창한 수림으로 가득차 있고 능선양쪽으로는 가파른 기울기가 돼 있었음. 1973년 충남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32.542㎢면적의 4개면에 걸려있음. 명소로는 정상 아흔아홉골, 칠갑산장(최익현 동산) 천장호, 장곡사, 정혜사, 자연휴양원, 도림사지, 듀률성 등이 있음. 오후, 공주 마곡사로 떠나다. 조계종 31본산 중 제6교구 본산이기도 함. 태수모양 계곡물이 휘감아 돌며 두 물줄기가 천왕문 앞에서 만나 흘러가는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 백제 의자왕 때 신라승 자장율사의 창건설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음. 백범 김구선생이 조선침략을 앞장선 당시 일본군을 평안도에서 처단하고 피신해 있었던곳이기도 함. 대광보전, 대웅보존 등 사찰 경내를 모두 답사하는 것으로 이번 겨울기행 마침.

23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8기 정기중앙위원회 총회 연세대학교 장기원 기념관에서 열림. 총회에서는 새 남측본부의장에 라창순씨를 선출하고 이종린 전의장은 신창균, 강희남목사와 함께 명예의장에 추대 또한 7기 사업평가와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8기 사업계획과 예산안 결의문 등 채택함.

- 용산 미8군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 주최로 반환촉구 월례집회를 열다.
- 제6차 이산가족 상봉 2진 남쪽상봉단 99명이 금강산여관에서 북쪽가족 193명을 만남.

24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주최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개정공청회를 열다. 권오헌 계승연대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계승연대 이덕우 명예회복위원장 사회로 명예회복법개정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정상적 운영(권오헌) 명예회복법의 개정내용(정태상변호사) '국가보훈체계 속에서 해답을(이명석-한나라당)' 등 발제와 박원순(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박승희(보상심의위원), 이강래(민주당의원), 권영세(민주노동당 부대표)씨 등의 토론이 있었고 방청인 질의에 대한 토론자들의 응답이 있었음.

- 한국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탑골공원 앞에서 고이즈미 일총리 방한에 즈음한 과거청산요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열다.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라크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염원 미사' 올리다. 미사에서는 이라크 전쟁책동 즉각중단, 한국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계획 즉가철회, 미국은 북미불가침조약체결 할 것등 요구하다.
-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주최로 콜린파월 미국무장관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25 노무현 16대 대통령취임식. 참여정부가 출범.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열고 개혁과 통합으로 사회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함.

- 하얏트호텔 앞에서 자통협, 평통사, 실천연대등 공동으로 '대북봉쇄 및 전쟁획책 불평등한 한·미관계 영구화 기도 이라크 전쟁파병 강요하는 파월국무장관 규탄 기자회견' 열다.
- 정치수배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 '새봄' 인터넷 방송국이 4일 간의 시험방송 끝에 이날 개국방송을 하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개국 방송에 초청받아 정치수배해제 촉구 대담 생방송하다.

2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에서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한총련합법화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학단협 2차 정책토론회 '한총련 합법화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열림. 조희연 학단협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학단협 대외협력위원장 김범준 교수 사회로 조국 서울대교수의 '한총련

합법화는 정치적 기본권보장의 시금석', 김승교 변호사의 '인권법률적 차원에서 본 한총련 합법화' 등 발제에 이어 이재정(민주당), 서상섭(한나라당) 의원과 김재홍 경기대교수, 정현백 성균관대교수, 안영민 민족21기자, 정재욱 연세대총학생회장 등 순으로 토론이 있었음. 토론회에서는 한총련의 이적규정의 부당성에 의견을 같이했음.

-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송월주 전 총무원장, 서영훈 적십자총재 등 사회각계 원로 188명은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반핵·반전·평화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을 발표하다.
- 시사모임이 낙성대역 카페 '사카'에서 열림. 이진, 한수정, 송창학, 주경임. 이용준, 김미성, 이창희, 정윤성 등이 호모에티쿠스 1, 2, 3장을 공부하고, 역사강좌 준비에 대해 논의함.

27 민가협 461회 목요집회 열다. 여는말 - 조순덕 상임의장, 노래공연-성균관대 사회학부 노래패 '아우성', 박경순씨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보내온 글낭독- 원창연(배우), 제 남편 박경순을 살려주세요 호소-김이경(박경순씨아내), 국제엠네스티 네델란드지부 아이들이 한국의 양심수를 석방해달라는 편지 보내옴,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 할 것을 촉구- 임기란(전 상임의장).

- 3·1정신계승! 자주와 평화를 위한 경기북부주민 횃불대행진 발대식이 효순이 미선이 죽임당한 현장에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열리다.
- 이라크 공격반대 한국군 파병반대 한반도 전쟁위협반대 등 퍼포먼스가 '평화의 벗·춤·여성'의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벌어짐.
- 노무현 대통령은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등 18개 부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임명하고 참여정부 첫 조각을 단행하다.
-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5년째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며 간경화 질환을 앓고 있는 박경순씨가 참여정부의 개혁은 양심수석방으로부터라며 양심수석방 수배해제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폐지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지역 사회단체성원들이 부산교도소 앞에 천막농성을 하며 '말기 간 경화환자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다.

28 민가협회원들 국회의원회관으로 이종걸의원 방문하고 대통령취임사면을 촉구하고 양심수, 수배자 등 명단을 전달하다.

- 민가협의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회장에 조순덕, 부회장에 이영, 이귀임, 이정임, 방영숙, 임선순, 후원회장에 안금득, 감사에 김정숙, 김순심 선출되었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심리로 이른바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 2년6월을 선고받은 이석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하다. 검찰은 원심에서의 구형량(10년)을 되풀이 했고 심재환 변호사의 무죄주장 변론과 이석기씨의 최후진술이 있었음. 이석기씨는 반국가단체구성 가입과 찬양고무혐의에 대해 명쾌한 논리로 공소내용을 반박하고 6·15 공동선언시대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역설하다.
-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혁당사건 관련 양심수가족과 사회단체 성원들 대통령취임 사면을 촉구하고 박경순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노상농성에 들어가다. 집회에서는 윤용배씨의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와 김기창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의 석방촉구발언과 하영옥 아버님의 인사말씀 등이 있었음.
- 출소 장기수선생님들과 양심수 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냄.
- 양심수 56명에 영치금 1만원씩 보냄.
- '말' 4권과 '민족21' 5권을 양심수들에게 보냄.